

지역 매아리



정읍시니어클럽, 개관 10주년 기념식 · 종무식 가져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정읍시니어클럽이 2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종무식을 가졌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내빈 약 7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환영사, 시상 등의 기념식과 함께 사업보고와 발전방향 제시, 미래산언 등으로 진행됐다.

정읍시니어클럽은 정읍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기관이다.

지난 2007년 7월 6일에 개관, 10여년 간 정읍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사업도 규모와 내실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시니어클럽은 내년에도 45억원으로 18개 사업단을 운영, 모두 1100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수익금 15억원 이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어르신들의 급여를 최저 시급인 7530원 보다 많은 8000원~1만원으로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무장면, 저소득 세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고창군(군수 박우정) 무장면이 골목 후미진 곳과 외딴 곳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취약계층 9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활성화 증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은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직원들의 협력으로 설치에 이뤄졌다.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은 낮 시간에 충전된 태양에너지로 야간에 불을 밝히는 태양광 가로등으로 전기 소모 및 탄소배출이 없고 장마철이나 흐린 날씨에도 사용이 가능해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김영연 무장면장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밝은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도움을 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행복한 삶 · 소통행정 인정받아

박우정 고창군수,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혁신경영 부문 2년 연속 대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8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혁신경영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성장과 발전을 합수목 중요해지는 CEO의 역할에 대해 혁신경영분야와 지역사회 공헌부문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CEO의 리더십을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리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민선 6기 고창군정을 이끌면서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소통행정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비롯한 SOC확충 뛰어난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생태관광도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을 혁신하는 최고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박 군수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은 군민의 행복에 있다는 신념으로 취임 초기부터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매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군민과의 대화와 군민 불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8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혁신경영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편사항이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사전에 발굴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도록 각 부서장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추진결과 보고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생태환경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의 보고이며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인천강 하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과 자연생태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최초로 문곡습지와 고인돌군, 선운산 등 6개소가 국가 지정공원으로 인정받는 한편, 고창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준 고창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 정감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고창군을 꼭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지자체장 관심도 ·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등 전 항목 높은 평가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한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2억원의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평가에는 관광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평가단이 참여했다. 지역발전 기여도, 관리 운영의 적절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리스크 관리, 사업 진행률,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도, 투자 재원의 다양화, 자치단

체장의 관심도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단은 특히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에서 시는 지자체장의 관심도, 체계적인 사업 준비와 조직운영, 전문성과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문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등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생기 시장은 "우수기관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2억원을 내장산 국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재투자해 세계절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읍의 문화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전북을 단일 관광지로 연계할 수 있는 토탈관광 체계를 구축, 전북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내년에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억원을 포함한 18억9000만원(도비12, 시비6.9)을 들여 조선판왕조실록 보존 터(비래인) 탐방로 정비와 단풍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내장산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한 대표 관광지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부안농협은 2017년 농업인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21일 김원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조합원가족 및 학생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부안 농협 관내 부안, 동진, 백산, 주산지역의 조합원 자녀로서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동중리 구영 김충선 조합원 자녀 김세현 군산대학교 3학년 학생 외 48명 대학생을 선정, 각각 일백만 원, 동중리 5구 정이옥 조합원 자녀 김동규 백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외 39명 고등학생을 선정 각각 오십만 원, 총 81명에 6천4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은 조합원 및 학생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 팜 시대가 도래되어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키워내는 일 우리의 몫으로 우리 농협도 앞장서겠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우뚝'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7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술센터는 21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회에서 열린 '2017년 농촌진흥사업 종합 보고회'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 기술 보급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상은 올 한 해 농촌진흥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우수기관에 주는 것이다. 기술보급 사업과 전문기술 교육, 강소농 육성, 6차 산업 추진

등 각 분야를 종합평가한 결과다.

센터는 올해 ▲자율적인 농업 경영 체인 강소농(強小農) 육성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과 단풍미인 소풍물 운영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한 소농과 귀농·귀촌 영농편의 극대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현장 중심·고객 감동의 찾아 가는 지도사업인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역 적음 실증사업·연구를 통한 기술 보급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과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장애인 모자가정에 사랑의 보금자리 제공

화장실이 없는 낡은 흙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모자가정에 기적처럼 보금자리가 생겼다.

21일 고창군은 포스코와 기아대척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해피 스틸하우스'를 통해 고창군 무장면 정정임(66)씨 가족이 주택을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땀으로 신축한 해피스틸하우스 준공식에는 이길수 부군수를 비롯해 포스코,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 2급인 정정임(66)씨는 장애 2급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거주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고창중장애안인지립생활센터가 '해피

스틸하우스' 공모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고창센터에서는 지난 9월말 EBS방송 '나눔 0700'을 섭외하고, 11월 11일 방송에 출연하여 후원금 1000만원 확보했으나, 후원금만으로는 주거환경 변화에 예산이 부족해 '해피 스틸하우스'에 공모했으며 11월 말 선정되어 토지소유 등기변경, 경계측량, 이사 및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해 21일 준공식을 가졌다.

정정임씨는 "비가 올 때 신발만 젖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집이 생겨 꿈만 같다. 주위의 지원과 따뜻한 성원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Below the main text are several images of different wine gift sets with their prices and specifications, such as 'GIFT SET 1 13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